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6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0,755	45.6	47,811	37.9	2,944
일본 부분	2,355	32.2	3,968	27.8	-1,613
일본 비중	4.6		8.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2020년 5월	2021년 5월	증감률
수출(백만¥, %)	4,185,565	6,261,276	49.6
수입(백만¥, %)	5,042,316	6,448,423	27.9
수지(백만¥, %)	-856,751	-187,147	-78.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6월 16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3,031	1,293	21,974	6,918	19,683	-3,761
한국 부분(억¥)	118	17	623	268	128	-105
한국 비중(%)	0.9	1.3	2.8	3.9	0.7	2.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4월 8일, 5월 13일,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5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5월	2021년5월	증감률		2020년5월	2021년5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30,806	74,463	141.7	전체	1,663	10,000	501.3
방한 일본인	413	1,403	239.7	방일 한국인	18	1,000	5455.6
일본인 비중	1.34	1.88		한국인 비중	1.08	10.0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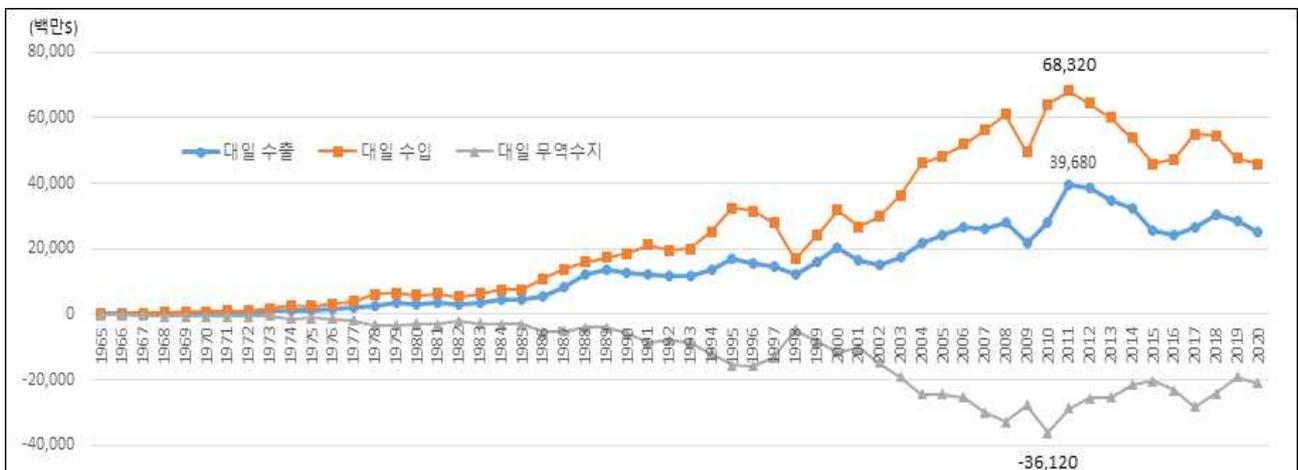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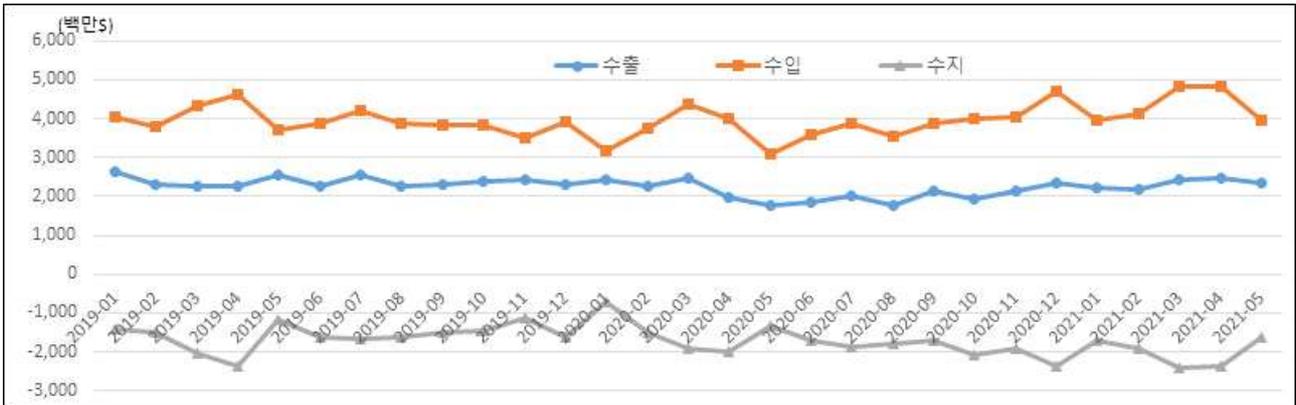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6월에는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 감소 후 6월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2%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7.8%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0,755	45.6	47,811	37.9	2,944
일본 부분	2,355	32.2	3,968	27.8	-1,613
일본 비중	4.6		8.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5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하였고, 대일 수출은 동(同) 32.2% 증가하여 23.6억 달러가 됨
- 2021년 5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7.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7.8% 증가하여 39.7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29.4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6.1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8.3%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5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은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입도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5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5월(백만\$, %)			2021년 5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1,782	-29.7	-1,324	2,355	32.2	-1,613
1	광물성연료	115	-66.8	95	321	178.9	261
2	철강제품	249	-32.1	-112	291	16.8	-159
3	정밀화학제품	230	20.7	-64	215	-6.6	-125
4	전자부품	133	-24.3	-214	178	34.1	-387
5	금속광물	73	-1.6	44	171	135.3	100
6	석유화학제품	72	-54.8	-62	158	120.6	-131
7	농산물	92	-7.0	77	100	8.1	83
8	산업용전자제품	108	-3.2	-101	98	-9.5	-132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6	-27.1	-30	77	2.2	-29
10	플라스틱제품	61	-21.5	-98	64	4.7	-12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5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5월(백만\$, %)			2021년 5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105	-16.4	-1,324	3,968	27.8	-1,613
1	전자부품	346	-28.0	-214	565	63.1	-387
2	정밀기계	407	69.5	-366	454	11.7	-405
3	철강제품	361	-35.8	-112	450	24.8	-159
4	정밀화학제품	294	-3.3	-64	340	15.8	-125
5	석유화학제품	134	-59.8	-62	289	116.5	-131
6	산업용전자제품	209	-8.1	-101	230	10.4	-132
7	수송기계	107	-52.7	-62	218	103.2	-160
8	플라스틱제품	159	-0.4	-98	184	15.6	-120
9	기초산업기계	198	13.6	-138	168	-15.2	-104
10	산업기계	145	-10.0	-92	136	-5.8	-7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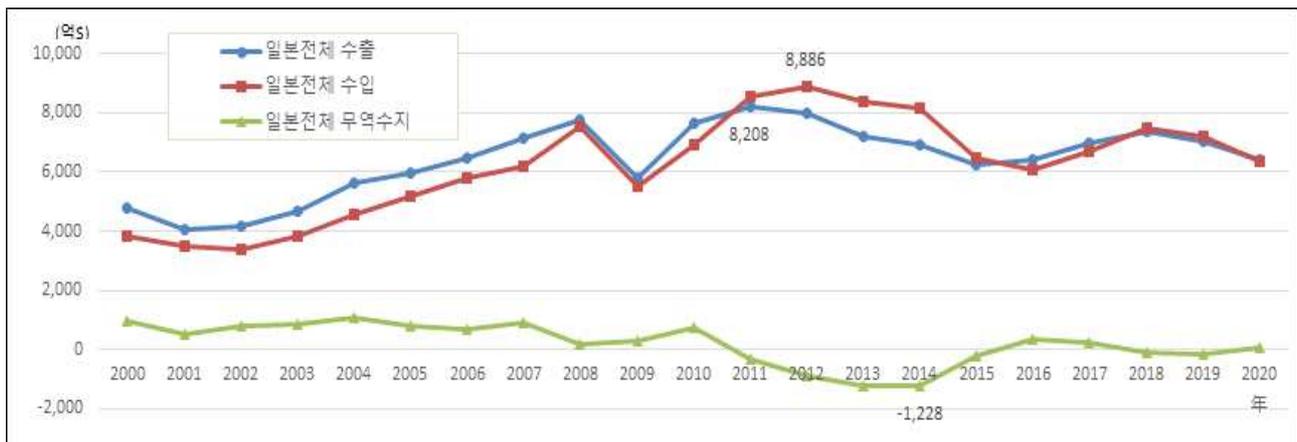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178.9%), 금속광물(135.3%), 석유화학제품(120.6%)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제품(-9.5%), 정밀화학제품(-6.6%)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116.5%), 수송기계(103.2%), 전자부품(63.1%)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기초산업기계(-15.2%), 산업기계(-5.8%)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적자가 전년동월대비 줄어들었음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상황

	2020년 5월	2021년 5월	증감률
수출(백만¥, %)	4,185,565	6,261,276	49.6
수입(백만¥, %)	5,042,316	6,448,423	27.9
수지(백만¥, %)	-856,751	-187,147	-78.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6월 1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부분품, 철강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9.6% 증가하여 6조 2,613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의약품, 비철금속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9% 증가하여 6조 4,484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도 적자였지만, 무역적자가 전년동월대비 78.2% 감소하여 1,871억 엔 적자로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1%, 수입의 48.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5,326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4.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對中) 무역적자는 1,918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8%, 수입의 0.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2,921억 엔 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2%, 수입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813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6.2%, 수입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한(對韓) 무역흑자는 1,189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6%, 수입의 11.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흑자는 3,60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9%, 수입의 3.5%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9%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261,276	100.0	49.6	6,448,423	100.0	27.9	-187,147	-78.2
아시아	3,638,612	58.1	32.5	3,106,022	48.2	13.2	532,590	*1322
중국	1,392,656	22.2	23.6	1,584,446	24.6	4.8	-191,790	-50.3
홍콩	301,902	4.8	18.8	9,839	0.2	72.0	292,063	17.6
대만	452,070	7.2	25.8	270,787	4.2	14.2	181,283	48.2
대한민국	390,277	6.2	18.5	271,348	4.2	34.1	118,929	-6.3
싱가포르	172,080	2.7	23.2	78,448	1.2	-17.6	93,632	110.3
태국	268,234	4.3	55.2	215,898	3.3	11.6	52,336	-
말레이시아	134,298	2.1	73.4	152,760	2.4	44.5	-18,462	-34.6
인도네시아	112,694	1.8	145.9	146,425	2.3	15.6	-33,731	-58.2
필리핀	92,892	1.5	82.2	92,605	1.4	70.0	287	-
베트남	165,723	2.6	42.6	191,763	3.0	17.2	-26,040	-45.1
인도	107,666	1.7	183.6	43,285	0.7	93.3	64,381	313.2
대양주	158,780	2.5	115.3	452,712	7.0	34.6	-293,932	11.9
호주	113,609	1.8	113.0	402,013	6.2	40.7	-288,404	24.1
뉴질랜드	24,279	0.4	161.1	24,686	0.4	-22.3	-407	-98.2
북미	1,189,831	19.0	94.0	861,888	13.4	29.7	327,943	-
미국	1,104,498	17.6	87.9	743,639	11.5	28.7	360,859	3415.3
캐나다	85,332	1.4	234.6	117,603	1.8	35.8	-32,271	-47.2
중남미	207,181	3.3	77.7	259,513	4.0	25.9	-52,332	-41.5
서유럽	717,752	11.5	69.9	913,537	14.2	38.1	-195,785	-18.1
독일	183,769	2.9	74.7	223,332	3.5	26.0	-39,563	-45.1
영국	96,586	1.5	59.6	59,961	0.9	27.6	36,625	170.7
프랑스	57,161	0.9	31.0	76,377	1.2	2.1	-19,216	-38.4
네덜란드	112,029	1.8	74.7	27,293	0.4	18.3	84,736	106.4
이탈리아	44,621	0.7	113.8	104,078	1.6	72.3	-59,457	50.4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8,693	2.4	65.8	179,949	2.8	37.3	-31,256	-24.6
중동	126,618	2.0	51.4	544,739	8.4	141.0	-418,121	193.6
아프리카	73,809	1.2	80.6	130,061	2.0	81.8	-56252	83.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단, *표가 있는 수치는 전년 대비 배율)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6월 16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든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수송용기기(118.9%), 원료품(105.6%), 원료별제품(45.7%)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15.4%), 일반기계(8.4%), 전기기기(6.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70.5%), 수송용기기(68.7%), 원료품(49.1%)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8.6%), 전기기기(4.1%), 화학제품(4.0%)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5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261,276	100.0	49.6	49.6	6,448,423	100.0	27.9	27.9
1 식료품	74,340	1.2	29.9	0.4	582,041	9.0	7.1	0.8
2 원료품	126,075	2.0	105.6	1.5	533,472	8.3	49.1	3.5
3 광물성연료	39,376	0.6	12.5	0.1	1,054,058	16.3	70.5	8.6
4 화학제품	816,144	13.0	32.6	4.8	851,738	13.2	31.2	4.0
5 원료별제품	759,911	12.1	45.7	5.7	685,648	10.6	9.7	1.2
6 일반기계	1,226,502	19.6	40.4	8.4	619,111	9.6	3.7	0.4
7 전기기기	1,131,209	18.1	32.9	6.7	1,035,911	16.1	24.7	4.1
8 수송용기기	1,185,642	18.9	118.9	15.4	279,854	4.3	68.7	2.3
9 기타	902,077	14.4	43.4	6.5	806,592	12.5	23.2	3.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6월 16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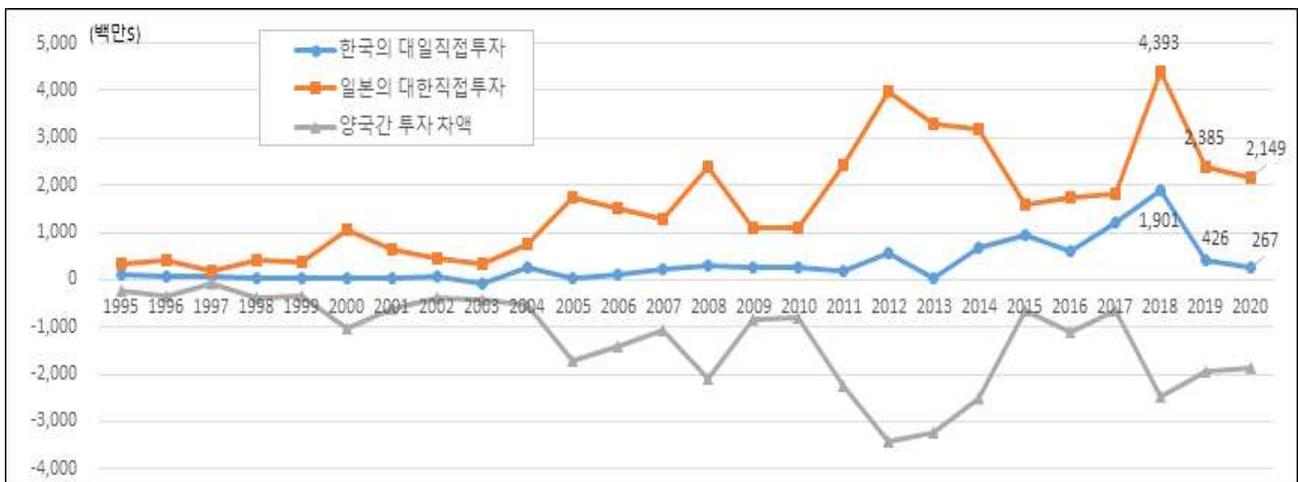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3,031	1,293	21,974	6,918	19,683	-3,761
한국 부분(억¥)	118	17	623	268	128	-105
한국 비중(%)	0.9	1.3	2.8	3.9	0.7	2.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4월 8일, 5월 13일,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3월 21,974억 엔(실행 57,498; 회수 35,524)에서 4월 19,683억 엔(실행 46,117; 회수 26,434)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3월 623억 엔(실행 663; 회수 41)에서 4월 128억 엔(실행 148; 회수 20)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0.7%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3월 6,918억 엔(실행 37,660; 회수 30,742)에서 4월 -3,761억 엔(실행 26,513 회수 30,274)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3월 268억 엔(실행 295; 회수 27)에서 4월 -105억 엔(실행 72; 회수 178)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순투자의 비중은 3.9%에서 마이너스 측면에서 2.8%로 되었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4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는 19,683억 엔으로 플러스, 대내직접투자는 -3,761억 엔으로 마이너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9,683억 엔(실행 46,117; 회수 26,434)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유럽(51.6%) 투자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북미(20.6%), 아시아(15.0%), 중남미(9.8%), 대양주(3.5%)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독일(5,441억 엔), 미국(3,696억 엔), 룩셈부르크(3,186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3,761억 엔(실행 26,513; 회수 30,274)으로 마이너스였음
- 대내직접투자에서 마이너스 순투자가 큰 곳은 유럽(-2,933억 엔)과 아시아(-1,729억 엔)였으며, 북미(688억 엔), 대양주(243억 엔), 중남미(71억 엔) 경우는 순투자가 플러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순투자가 큰 곳은 스웨덴(-3,146억엔), 홍콩(-738억엔), 중국(-610억 엔) 등이었고,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677억 엔), 영국(255억 엔), 호주(242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4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19,683	100.0	-3,761	100.0
아시아	2,950	15.0	-1,729	46.0
중국	955	4.9	-610	16.2
홍콩	157	0.8	-738	19.6
대만	154	0.8	-21	0.6
한국	128	0.7	-105	2.8
싱가포르	599	3.0	-110	2.9
태국	243	1.2	-156	4.1
인도네시아	322	1.6	1	0.0
말레이시아	111	0.6	8	-0.2
필리핀	121	0.6	-3	0.1
베트남	165	0.8	1	0.0
인도	74	0.4	3	-0.1
북미	4,057	20.6	688	-18.3
미국	3,696	18.8	677	-18.0
캐나다	361	1.8	11	-0.3
중남미	1,927	9.8	71	-1.9
멕시코	46	0.2	-1	0.0
브라질	78	0.4	—	-
케이만제도	1,502	7.6	97	-2.6
대양주	686	3.5	243	-6.5
호주	669	3.4	242	-6.4
뉴질랜드	13	0.1	12	-0.3
유럽	10,156	51.6	-2,933	78.0
독일	5,441	27.6	-13	0.3
영국	307	1.6	255	-6.8
프랑스	-41	-0.2	95	-2.5
네덜란드	542	2.8	74	-2.0
이탈리아	33	0.2	2	-0.1
벨기에	53	0.3	82	-2.2
룩셈부르크	3,186	16.2	1	0.0
스위스	334	1.7	-120	3.2
스웨덴	-43	-0.2	-3,146	-16.0
스페인	40	0.2	3	0.0
러시아	31	0.2	—	-
중동	-11	-0.1	-1	0.0
아프리카	-83	-0.4	-100	2.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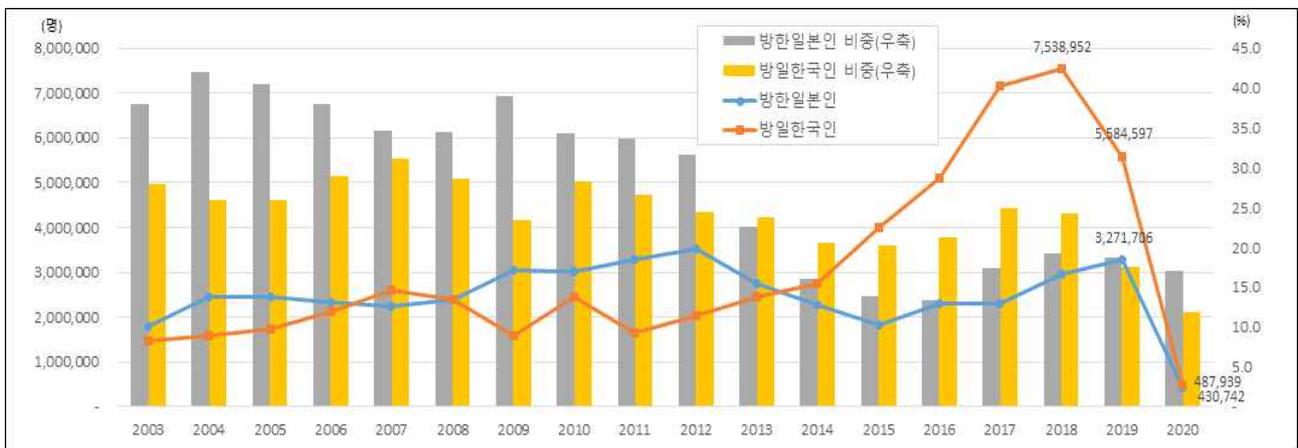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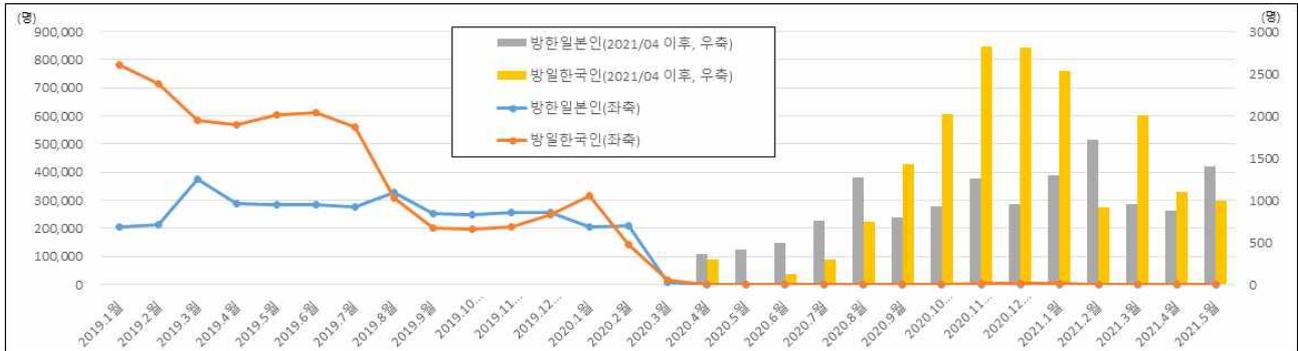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5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5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2,000명, 4월 1,100명, 5월 1,0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5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5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5월	2021년5월	증감률		2020년5월	2021년5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30,806	74,463	141.7	전체	1,663	10,000	501.3
방한 일본인	413	1,403	239.7	방일 한국인	18	1,000	5455.6
일본인 비중	1.34	1.88		한국인 비중	1.08	10.0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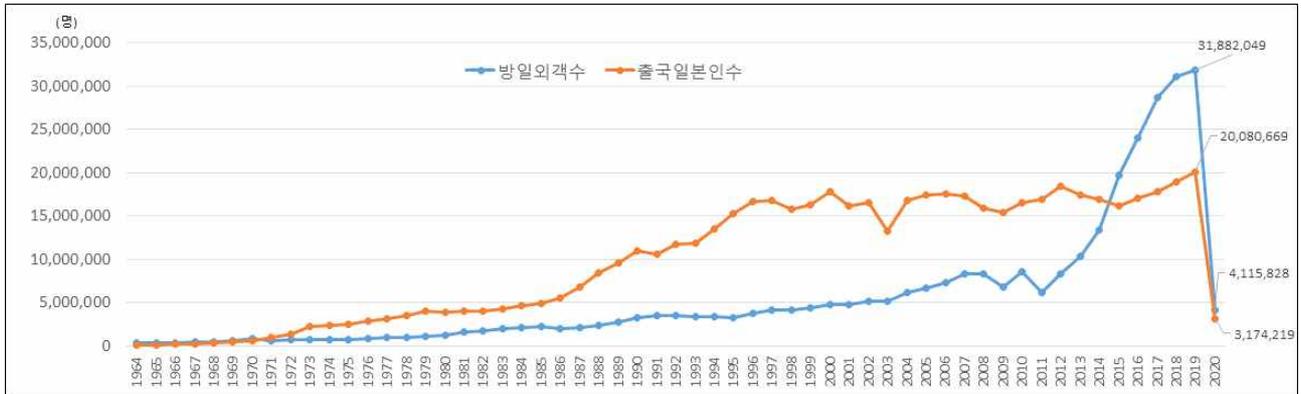
- 2021년 5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74,46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7%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40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9.7%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5월 1.34%에서 2021년 5월 1.88%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 2021년 5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0,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1.3%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55.6%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5월 1.08%에서 2021년 5월 10.0%로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5월 상황

- <표10>은 2021년 5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증가하였음
 - 2021년 5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0,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1.3%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10.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455.6%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7100.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650.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70명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900.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500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624.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10.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027.7%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5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5월		2021년 5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1,663	100.0	10,000	100.0	501.3
한국	18	1.1	1,000	10.0	5455.6
중국	25	1.5	1,800	18.0	7100.0
대만	8	0.5	300	3.0	3650.0
홍콩	1	0.1	70	0.7	6900.0
태국	9	0.5	200	2.0	2122.2
싱가포르	0	0.0	40	0.4	—
말레이시아	4	0.2	100	1.0	2400.0
인도네시아	5	0.3	300	3.0	5900.0
필리핀	6	0.4	600	6.0	9900.0
베트남	2	0.1	400	4.0	19900.0
인도	29	1.7	500	5.0	1624.1
호주	2	0.1	90	0.9	4400.0
미국	47	2.8	1,000	10.0	2027.7
캐나다	5	0.3	60	0.6	1100.0
멕시코	1	0.1	40	0.4	3900.0
영국	6	0.4	200	2.0	3233.3
프랑스	16	1.0	200	2.0	1150.0
독일	4	0.2	200	2.0	4900.0
이탈리아	3	0.2	90	0.9	2900.0
러시아	6	0.4	200	2.0	3233.3
스페인	2	0.1	200	2.0	9900.0
중동지역	0	0.0	90	0.9	—
기타	1,464	88.0	2,320	23.2	58.5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6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6월 24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1년 1-3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실질치	0.0	-4.7	-5.6	-1.1	-1.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6	-1.9	-2.9	-1.7	-0.6	-0.7	0.2	2.3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18.7	-0.4	5.2	6.3	8.2	20.7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1.3 -10.1	80.5 -7.0	83.0 -1.6	80.8 -3.7	88.0 1.5	88.3 7.1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7.0	8.5	9.1	-8.6	11.3	12.1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14.9 -11.1	-1.8 -3.2	4.6 6.0	-4.3 22.0	12.6 3.9	28.4 P 1.2	P 38.6 P 6.9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3.0	-3.5	-1.0	-2.0	3.4	15.8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8.4	-0.7	26.0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383 1.7	7,773 -7.2	2,021 -7.3	1,751 -20.8	1,554 -28.1	466 -31.4	634 -14.3	477 -35.8	472 50.3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8	3.0	3.0	2.8	2.9	2.6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8 0.2	-2.1 -0.8	-0.3 -0.4	-0.6 -0.4	1.2 -0.2	3.8 -0.4	P 4.9 -0.1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2,906 106.20	25,194 104.49	29,001 106.09	29,458 105.36	29,315 108.65	29,426 109.13	28,517 109.19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4월, 5월, 6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약세 상태로 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4월에 전월대비 0.8% 감소함

- ‘가계조사’ (4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4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4.6%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또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약세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긴급사태선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약세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지출을 중심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동향에 따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3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1-3월기는 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0.5% 증가, 비제조업이 0.9%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3월 조사) 및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4-6월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의 착공은 보합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총 호수는 4월에 전월대비 0.3% 증가하여 연율 88.3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4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1% 감소, 5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5.0% 증가, 4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1.8%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전반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EU,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5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5월 대비 99.6%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4월에 전월대비 2.9%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4월에 전월 대비 0.1%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5월은 전월대비 1.7% 감소, 6월은 전월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 부품·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및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엄중함이 남아 있는데 회복 움직임에 담보상태가 보이며,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계보’ (1-3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3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6.0% 증가, 전기대비 5.6% 증가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63.2%,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10.9% 증가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전년대비 41.2% 증가,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1.6%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엄중함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일본은행 短観(3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6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4월 477건, 5월 472건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4월에 전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여 2.8%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보합권내에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제조업도 부족초과 쪽으로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5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5월에는 전월대비 1.1% 포인트 하락하여 74.9%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8,500엔 대부터 29,400엔 대까지 상승한 이후 28,000엔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28,800엔 대로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9엔 대에서 110엔 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1% 대에서 -0.04%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2.2%(5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24.4%(5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7.9%(5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6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6월 24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또한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오랫동안의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강인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6월 18일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등을 각의 결정하였음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6월 20일에 긴급사태조치의 구역으로부터 9개 도도부현을 제외시켰고,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조치, 10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계속해서 백신접종의 신속한 실행, 감염확대의 억제를 최우선으로 대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2020년도 제3차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히 집행함
 - 앞으로도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예비비의 활용을 통하여 임기응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감과 더불어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저 없이 기동적인 매크로 경제정책 운영을 실행해 나갈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6월 18일에 앞으로도 계속 기업 등의 자금운용을 지원해 간다는 관점에서 COVID-19 대응 자금운영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연장을 결정하였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의 COVID-19 및 올림픽 관련 동향

○ COVID-19 관련 동향

- COVID-19 백신접종의 가속화를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접종 장소를 제공하거나, 직장에서의 접종을 준비하는 노력 등이 있음
- 이온은 전국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상업시설의 비어 있는 공간을 백신접종을 위해 제공하고 있음
- COVID-19 백신을 직장 등에서 접종하는 ‘직역접종(職域接種)’이 6월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일본체육대학 세타가야 캠퍼스는 학생 홀에 설치된 부스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차례로 접종을 받았으며, 도호쿠대학도 6월 2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했으며, 키키대학, 나가사키국제대학도 백신접종을 시작했음
- 일본 정부는 6월 23일 COVID-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03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 일본의 백신접종은 4월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상을 64세 이하로 넓힌 기업과 대학에서의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 도쿄올림픽 관련 동향

- 2021년 6월 1일 도쿄 올림픽 일본 선수단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
- 6월 1일, COVID-19로 인한 올림픽 연기 후 입국하는 첫 선수단인 호주 소프트볼 여자 대표선수들과 코치 등 29명이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군마현 오타시에서 사전 합숙을 하게 됨
- 선수들은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 일본에 방문하였으며, 매일 PCR검사를 받아 양성인 경우 현지 의사회의 협력을 얻어 진찰받게 됨
-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정상급 일행의 인원수에 대하여 당초 12명에서 최대 40명까지로 인원을 늘렸음
- 경제동우회 사쿠라다 대표간사는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관객으로의 대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음
- 일본 정부는 6월 28일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출국 전 7일간 매일 검사를 하고, 선수는 입국 후 14일 간 또는 대회 출전까지 매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6.01., 2021.06.23.; 요미우리신문, 2021.06.05.; NHK, 2021.06.03., 2021.06.04.; 아사히신문, 2021.06.21.; 산케이신문, 2021.06.28.)

□ 일본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

○ 탈탄소화의 확산 움직임 및 관련 정책

- ‘에너지 백서’에서는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거래처에 대해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에서 기업의 탈탄소 대처를 고려한 투자나 용자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였음
- 재생가능 에너지 조달의 용이성이 향후 기업이나 산업 유치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에너지 백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별로 탈탄소를 향한 공정표를 책정하며, 공정표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
- 6월 9일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온실효과 가스를 삭감하는 생산설비 도입,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업무 효율화 실시 등의 경우에 법인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정부의 사전 확인시 상장사 주총을 완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의 내용임

○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

- 일본 정부는 자동차의 전동화를 가속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수를 현재의 5배에 해당하는 15만기, 연료전지차용 수소 스테이션을 현재의 6배에 해당하는 1,000기로 늘릴 방침임
-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한 공정표에서 2023년까지 외딴 섬 간의 화물 수송 사업화를 명시할 계획임
- 일본 업체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가 2019년 12월 유인 비행시험을 시작했으며, 테트라·아비에이션(teTra aviation)이 1인승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4일 반도체 산업 부양을 국가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에서는 일본에 강점이 있는 반도체 제조 장치나 관련 소재의 국내 메이커와 해외의 반도체 제조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한 뒤, 일본에서의 합작 공장 건설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를 그림
- 오늘날 인공지능과 자동차 자율주행 등으로 첨단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일본 업체들은 첨단 반도체를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스트 5G 전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 키옥시아와 소시오넥스트에 합계 10억 엔을 출자함

- 대만적체전로제조(TSMC)가 일본에서 진행하는 첨단반도체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은 아사히카세이(旭化成), 이비덴(IBIDEN),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学工業), 신코전기공업(新光電気工業), 후지필름(FUJIFILM), 키엔스(キーエンス), 시바우라 메카트로닉스(芝浦メカトロニクス), 시마즈 제작소(島津製作所) 등 20개사 이상임

(출처: NHK, 2021.06.02., 2021.06.04., 2021.06.09; 아사히신문, 2021.06.05.; 닛케이신문, 2021.06.04., 2021.06.20.; 산케이신문, 2021.06.22.; 요미우리신문, 2021.06.30.)

□ 한일 관계

-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 지도 독도 표기 및 징용 소송 기각
 - 한국 외교부의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6월 1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라고 촉구하였음
 - 가토 관방장관은 5월 28일 표기를 삭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미쓰비시머티리얼, 일본제철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소송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음
-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과세 및 용융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시작 발표
 - 일본 정부는 LCD 등에 사용되는 탄산칼륨이 한국에서 부당하게 싸게 수입되어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었다며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21년 3월부터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잠정조치와 마찬가지로 30.8%의 관세가 부과되며, 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음
 -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철망류나 유자철선에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철선에 대해 한국산과 중국산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일본 국내 4개 업체가 한국산과 중국산 판매가격이 낮아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에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1.06.01.; NHK, 2021.06.07., 2021.06.08.; 닛케이신문, 2021.06.14., 산케이신문, 2021.06.07., 2021.06.14.)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반도체 산업 및 첨단 산업 동향

- 하수진흙을 이용한 수소 생성 및 카본 리사이클의 실용화
 - 하수도 처리시 발생하는 하수진흙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서 수소 생성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실질 제로로 간주할 수 있음
 - 토다건설은 4월에 재팬블루에너지(Japan Blue Energy) 등과 공동으로 하수진흙으로부터 수소를 생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하수진흙을 처리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설비의 판매를 시작함
 - 미쓰비시화공기와 토요타통상 등은 후쿠오카시에서 국토교통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수진흙을 이용한 수소 생성 실증 실험을 하였고, 신코환경솔루션도 국토교통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본하수도사업단, 시즈오카현 후지시와 공동으로 하수진흙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실증을 실시했음
 - 한편, 세키스이화학공업은 미국 스타트업인 LanzaTech의 기술을 활용하여, 쓰레기 처리 시 배기가스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음
 - 미국 옥시덴탈페트롤리엄의 자회사인 옥시로카본벤처스와 바이오엔지니어링 스타트업인 센비타팩토리도 미생물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시험 플랜트를 2022년에 건설한다고 4월에 발표하였음
 -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정밀기기 제조업체인 세이코엡손은 부품 구매처 등 1,700여개의 업체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음
 - 토요타자동차는 직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 주요 부품업체에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년 대비 3%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를 주도함
 - 자동차 메이커는 부품의 70~80%를 거래처에서 조달하여 조립하므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탈탄소화에는 부품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임
- 반도체 산업에서의 생산 능력 증강 및 시설 확장
 - 칸사이 지방의 반도체 재료 메이커인 다이셀(Daicel)은 레지스트의 원료인 ‘폴리머’의 생산 능력을 향후 5년간 2배로 증가시킬 계획임
 - 오사카유기화학은 레지스트의 다른 원료인 ‘모노머’의 생산의 생산 능력을 약 30% 끌어올리기로 하였음
 - 반도체 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를 생산하는 후지킨은 2026년을 목표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30% 증가시키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 외에 일본 국내의 공장도 확장함

○ VR, MR의 활용

- 하천과 도로 등의 공공 공사에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로 작업을 효율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니이가타현의 하천공사에서는 공사 현장, 건설회사 본사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각각의 장소에 있는 기술자가 전용 고글을 착용하여 강 주변의 영상이나 강의 깊이 등에 대한 데이터 이미지를 공유함
- 음료대기업인 산토리는 MR(Mixed Reality, 혼합현실)를 활용하여 페트병 원료를 만드는 영국 기업과의 상담에서 현지 주재원이 고글형 단말기를 쓰고 영국의 제조라인을 촬영해 도쿄 사무실의 모니터로 영상을 보내는 등의 구조를 도입했음
- 아사히그룹홀딩스는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를 사용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음

(출처: NHK, 2021.06.27., 2021.06.28.; 닛케이신문, 2021.06.03., 2021.06.07., 2021.06.17., 2021.06.18., 2021.06.21.)

□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양국 진출 동향

○ 쿠팡의 일본 내 시범 서비스 시작

- 쿠팡이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함
- 소형 점포를 물류 센터로 활용하여 인근에서 주문이 있으면 곧바로 배달하는 구조로 신선식품, 가공식품, 일용품 등을 취급함
- 음식 배달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배달원들이 앱에 등록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의뢰하는 구조임
- 한국에서의 사업 모델과는 다른 서비스 형태임



(출처: 일본 쿠팡 앱 화면 캡처)

○ 마쿠아케의 한국 거점 설립



(출처: 마쿠아케 앱 화면 캡처)

-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업체인 마쿠아케(Makuake)가 6월 10일 한국에 첫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 *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출처: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300&cid=43667&categoryId=43667>)
- 클라우드 펀딩은 제품개발 전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 양산 전에 수요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한국의 기업을 지원하여, 마쿠아케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실시함
- 2017년 이후 마쿠아케에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는 600여건이 게재되었다고 하며, 2020년의 응원구입 금액은 전년대비 1.5배 증가하였다고 함

(출처: 넛케이신문, 2021.06.04., 2021.06.10.; 산케이신문, 2021.06.10.)